

# 자연과 사람의 조화, 한국의 전통마을에서 배우는 것들

우리가 오늘 전통마을로 발길을 옮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갑자기 과거가 그리워졌기 때문인가? 물론 전통마을이 전통 문화나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관광지의 하나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통마을은 우리의 주거환경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참으로 진실된 교훈을 던져주고 있음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최**근 전통마을에 대한 관심은 어떤 이유로든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전통마을에 대한 관심은 그 만큼 우리가 그동안 현대화의 그늘에 가려 잊고 살았던, 아니 잊고 살았던 우리 삶의 터로서의 모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단지이든 단독주택지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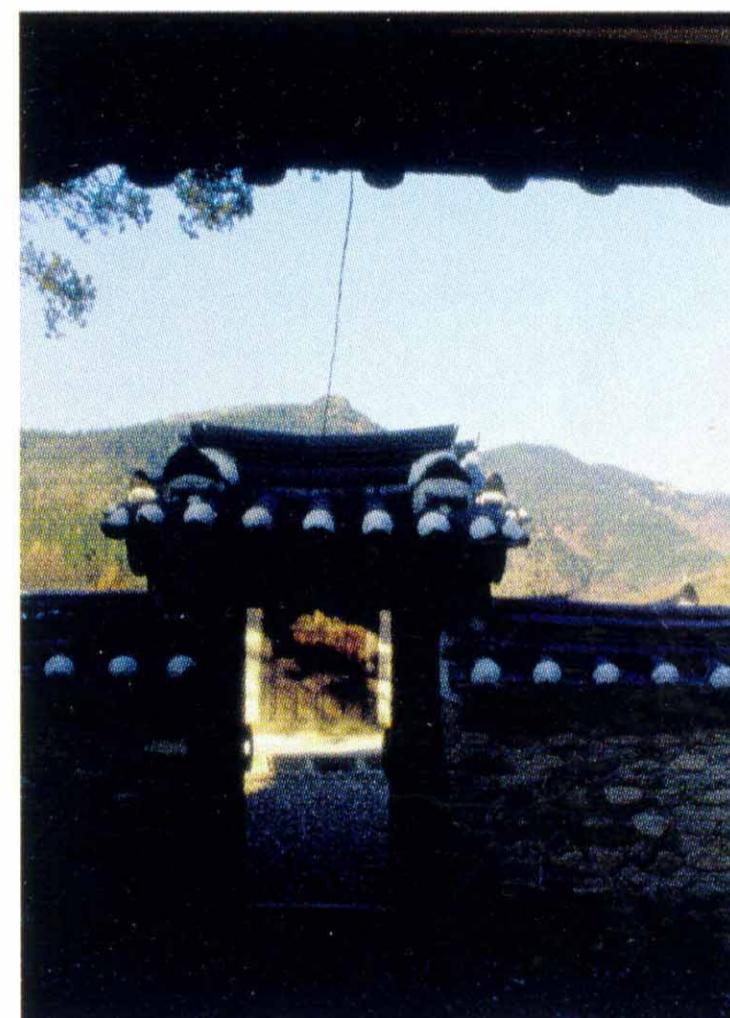
그곳이 진정 사람을 위한 주거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편의와 경제적 가치가 사는 사람의 정신이나 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새 우리의 공간은 이웃 간의 단절, 자연환경의 파괴, 새집증후군 등으로 인해 결국 사람도 자연도 맘 놓고 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하고 만 것은 아닌가? 이런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통마을을 살피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전통마을 연구에 긴 시간을 매달려온 것은 그곳에 건축가로서 펼치기 힘든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건축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건축과 도시가 인간을 다른 인간으로부터 또 자연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현대의 건물들은 크고 화려하지만 우리를 땅과 떼어놓고 우리를 한 없이 작아지게 하곤 한다. 그에 비해 전통마을에 들어가면 집과 나무들이 나를 반기고 존중하는 듯하다. 나는 마을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땅과 인간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전통마을,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름답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공동체의 삶터’,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사는 환경친화적 삶터’의 모습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이상적인 주거공간이란 무얼까 한번쯤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꼭 전통마을을 답사하여 조상들의 지혜에 귀기울여볼 것을 권한다.

##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관계의 미학, 전통마을

어디를 가나 비슷비슷한 아파트단지와 달리 전통마을의 모습은 참으로



◀옻골마을 보본당 대청에서 대암을 본 모습.  
종가의 재실인 보본당의 대청 판문을 열면  
별묘의 대문, 별묘의 출입문, 그리고 대암이  
정확히 일직선상에 놓인 것을 볼 수 있다.

다양하다. 대구 둔산동 옻골마을은 거의 모든 집들이 정남향을 하여 직선적인 마을공간을 이루고 있다. 전통마을로는 드물게도 기하학적인 질서를 가진 마을이다. 그런데 이런 옻골마을의 특이한 구성에 대한 단서는 마을 안을 아무리 뒤져도 찾을 길이 없다. 그것은 마을 뒷산 봉우리에 거북이 머리 같이 생긴 ‘대암’이란 바위에 있기 때문이다.

옻골마을에 일족을 데리고 들어온 대암 최동집 선생의 호를 딴 바위 대암은 그분의 불천위(不遷位; 학문이 뛰어나거나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 대해서 그 신위를 옮기지 않고 영구히 모시도록 국가나 유림이 지정한 신위)를 모신 별묘, 그분의 제사를 모시는 보본당이라는 재실, 그 밖의 여러 집들, 그리고 마을의 안길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의지처럼 대암을 향해 축선을 맞춤으로써 자연스럽게 질서 정연한 마을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자연을 시작점으로 마을을 만들고 인간이 건축을 통해 자연과 연결되는 모습은 우리 전통마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전남 신안군의 비금도에서 마을 안길을 따라 걷다보면 나란히 이어지는 돌담의 안내를 받고 있는 듯하다. 재미있는 것은 이 돌담의 높이가 안길에 면한 집들의 처마높이와 같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안길에서 집안은 들여다보이지 않는다. 더욱 미묘한 것은 담이 끊기어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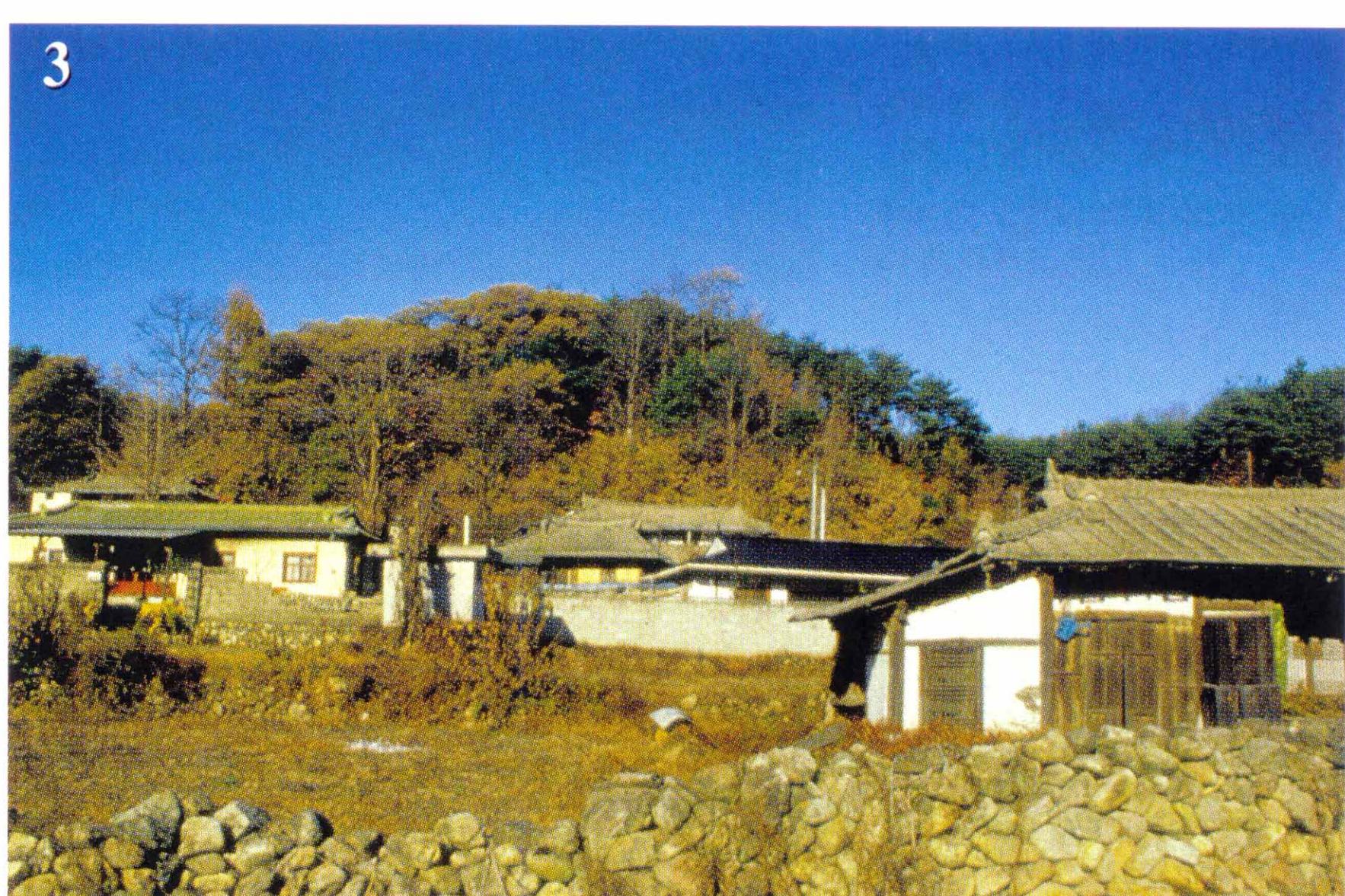


1

- 1 비금도 민가 입구의 전이영역.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면서도 소통을 허용하고 있다.  
2 원터마을 내부에서 본 방초정. 원터마을에서 모든 길은 방초정으로 통한다. 뒤가 구리지 않은 이상 마을사람들이나 외부인은 모두 방초정을 지나 마을 안팎을 드나든다.  
3 닭실마을의 집들. 안길에서 바라본 모습. 집들이 서로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안길에서 올려다보면 모든 집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2



3

뿐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달려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출입구 부분에서 담이 집 안쪽으로 꺾이어있어 안길을 걷는 사람의 눈에는 집안이 드러나지 않는다. 안길과 집,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살짝 구분해주고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을 구분하되 언제든지 원하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체계이다.

전통마을은 이렇게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관계의 미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집 한 채 나무 한 그루 그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이해할 때 마을공간의 진정한 미학을 발견하게 된다.

### 공동체적 삶터로서의 마을, 원터마을과 닭실마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주택은 내부공간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지만, 그것이 모여서 이루어진 주거단지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회의 소통과 결속을 조장하는 공간체계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현대 주거단지가 가진 가장 취약한 점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대의 거주생활은 가족 중심의 개별적인 생활에 그칠 뿐 공동체적 활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일어난다. 이에 따라 가족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인간의 소외현상도 심화된다. 청소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현상은 일상생활의 무대인 주거단지의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전통마을의 공간조직을 살펴보면 큰 교훈을 얻게 된다. 경북 김천시의 원터마을은 거주자들이 마을입구에 있는 방초정이라는 정자와 연못가에서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도록 마을의 공간체계가 이루어졌다. 곧, 개별 주택에서 마을입구로 연결되는 과정에 마을의 대표적인 사회시설인 정자를 거치도록 길의 체계가 구성되어서 거주자들은 자연스럽고 빈번하게 서로 접촉하게 된다. 마을을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하는 물리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전남 나주군 도래마을에서는 종가의 앞쪽으로 집들이 모여있다. 그런데 집집마다 대문 이외에 작은 샛문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이웃집들과 긴밀히 연결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샛문은 일상생활에서 집들 사이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물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서로 형제관계 혹은 그에 버금가는 친밀한 혈연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겠으나, 이는 전통마을의 생활이 가족 중심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중심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는, 종가와 그 옆집은 철거되었고 주택들 사이를 통합시켜주던 샛문들은 폐쇄된 상태이어서 이전의 재미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경북 봉화의 닭실마을에서는 마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단체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기 앞에 설 때처럼 집들이 서로 다른 집을 가리키지 않은 채 비켜 서 있다. 집들이 서로 조금씩 몸을 틀어 햇볕과 시선을 터주고, 심지어 같은 집의 안채와 사랑채도 서로 일조를 방해하지 않게 배열돼 있다. 한 건물이 좋은 조망을 차지하고 나면 다른 건물들은 그것의 뒤통수만 바라보아야 하는 현대의 주거단지와 다른 모습이다. 마을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에서는 누군가가 최상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최적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전통마을의 논리가 현대 도시공간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전통마을에서 발견하는 소통하는 공동체, 양보하여 모두가 최적의 환경을 누리는 공동체의 모습은 현대의 주거지를 계획하는 데에도 중요한 참조가 된다.

## 자연의 순환이 아름다운 환경친화적 삶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전통이 있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은 그런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이었다. 산업화 이전에 조성된 한국의 전통마을도 그러한 사고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형성·발전되어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마을에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혜가 농축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오늘날에 비한다면 전통사회에서는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기술이 현저히 제한되었다. 그러한 조건에서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자연환경을 조절하여 거주공간을 형성하였고, 에너지와 기술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유지 관리될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드는 방안들을 부단히 궁리하였다 것이다.

전통마을은 바로 그러한 궁리의 산물이며 따라서 그곳에는 환경생태적

인 합리성이 내포되어 있다.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한국의 전통마을을 답사하고 관찰하면서 내가 발견한 소박한 사실은, 어떠한 마을에도 환경친화적 아이디어들이 숨어있다는 점이다.

전통마을의 환경친화성을 논하기에 앞서 환경친화성이라는 말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 환경친화성이라는 말이 마케팅에 어지럽게 쓰이고 심지어 산을 깎아 없애는 공사현장에도 ‘환경친화적 기업’이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으니 그 뜻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풍수지리와 환경생태학과 같은 동서양의 이론들, 그리고 현대에 여러 나라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들을 두루 살펴본 결과, 환경친화적 거주지는 기본적으로 자연조건에 대한 적응성, 자원의 순환, 에너지 절감 시스템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 세 요건은 서로 관련되고 상호 의존적이다. 이 요건들은 우리 전통마을의 환경친화성을 분석하는 틀로 삼을만하다고 생각한다.

‘자연조건에 대한 적응성’이란 부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연 생태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그에 적응하는 건설과정을 거침으로써 거주지의 건설과 유지관리가 주변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거주지가 외견상 훌륭한 자연조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기존의 자연상태를 파괴하는 개발과정을 거쳤다면 그 거주지는 결국 주변의 생태계와 단절될 것이므로 그것을 환경친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토지, 수공간, 녹지 등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풍부하고도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환경친화적 거주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마을의 토지이용, 그리고 마을공간에 녹지와 수공간 등 자연요소를 도입하는 방식이 주어진 자연조건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살펴보면 전통마을의 환경친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쓰레기차가 며칠 안 오면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되는 아파트단지와 달리 쓰레기차가 없는 전통마을은 깔끔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전통마을은 자원을 순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의 순환’이란 거주생활에서 자원의 소모가 최소화되고 거주지가 자체의 순환기능을 갖추어

▼ 도래마을 농업생산 부산물의 순환. 마을 앞쪽의 정미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거는 현장에서 계분과 혼합되어 퇴비가 된다.





◀ 효동마을 김씨 할머니 댁.  
전통마을에서 현대의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  
지 못함에 따라 자연스럽고 아  
름다운 전통마을의 경관은 급속  
히 사라지고 있다.

일정한 재생기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대지와 건축이 자체 순환기능을 갖고 자기충족적 일수록 자연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줄어든다. 마을에서 사용된 수자원, 그리고 마을에서 발생한 유기성 쓰레기와 농업생산 부산물 등이 순환되고 재활용되는 방식을 관찰하면 마을의 환경친화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2002년 6월 나는 원터마을에서 수자원이 순환하는 데 중심이 되는 연못의 하수 자연정화기능을 과학적으로 시험하였다. 물의 시료를 채취해 부유물질과 유기물질을 분석하는 시험을 한 결과, 원터마을의 연못은 정화지의 기능을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실 시험결과는 내가 당황할 정도로 이상적으로 나왔다. 환경에 해가 되는 모든 인자들이 연못을 거치면서 효과적으로 제거되어 생활하수가 상당히 자연정화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부유물질(SS)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에 있어서 모두 수질환경보건법상 방류수의 기준에 근접하는 수치를 보였으니, 원터마을의 연못에서 나오는 물이 그대로 하천에 방류된다 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음을 입증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마을을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생각해보자. 전통마을은 대개 남쪽 전면을 제외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는 완경사지에 위치한다. 여름에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므로 비교적 서늘하다. 대개 마을 앞에는 시내가 흐르고 연못까지 있어, 수분이 주변에서 기화열을 빼앗아 증발하므로 불어오는 바람의 청량감이 더해진다. 예전에 에어컨이 없이도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거주지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반면, 겨울에 마을공간은 비교적 온난하다. 낮에 일조를 많이 받고 밤에는 복사열을 받으며, 차가운 북서계절풍이 지형과 조경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형적인 전통마을은 에너지가 절감되는 시스템의 기본 요건을 갖추었으며 따라서 환경친화적 거주지라고 할 수 있다.

### 전통마을, 우리의 보편적 건축이론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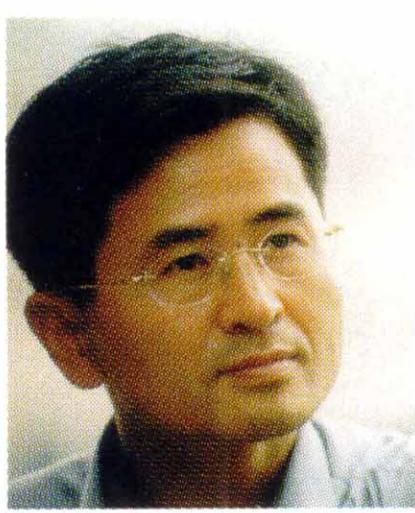
마을에는, 그곳에서 살다간 또 여전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들의 따스한 숨결이 있다. 그리고 마을에는 우리 건축의 정신과 역사가 새겨

져있다. 나는 이 글에서 전통마을의 미학, 공동체성, 환경친화성을 이야기 했지만 관심사에 따라 그 감동과 교훈의 내용은 다를 것이다.

나는 마을연구를 더해가면서 우리 마을에 어떤 보편성이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발견한 건축적 논리들이 단지 서구 이론의 빈 부분만을 채워주는 대체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론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 특히 현재의 주거공간과 주거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밝은 앞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주거지 곧 마을을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전통마을을 찾다보면 안타까움이 몰려올 때가 많다. 최근 민속마을로 지정된 마을들에서는 마을의 옛 모습을 살린다고, 그렇게 지정되지 않은 많은 마을들에서는 우리도 남들처럼 버젓이 잘 해놓고 살겠다고 애쓰다보니 대부분의 전통마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영광군 효동마을은 수년전까지만 해도 정책적으로 보존되는 민속마을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초가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마을이었다. 그러나, 최근 마을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 그곳에 사시던 할머니들과 함께 초가는 사라졌고 돌담과 조경 일부를 제외하고는 마을이 완벽하게 바뀌었다.

우리 마을에서 전통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큰 불편 없이 현대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제 그에 대한 연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싶다.



■한필원(韓弼元)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성림 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설계 실무를 하였다. 중국의 칭화대학(清華大學) 건축학원에서 연구하였으며, 미국의 뉴욕주립대학(버팔로)에서 방문교수로 있었다. 1996년부터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아시아건축연구실(ATa)을 이끌고 있다. 저서로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 1, 2〉, 공저로 〈주거의 문화적 의미〉, 〈지식의 최전선〉〈한국의 전통생태학〉이 있다. 아시아건축연구실에서는 한국의 전통주거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연구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연구에 토대를 둔 건축설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건축연구실의 연구 자료와 성과는 인터넷 사이트 ATa (<http://ata.hannam.ac.kr>)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